



Original Article / 원저

##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제제에 대한 환자 만족도 측정을 위한 예비연구

양미성<sup>1</sup>, 김경옥<sup>2\*</sup>, 양승정<sup>3</sup>

<sup>1</sup>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sup>2</sup>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sup>3</sup>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 A Pilot Study to Measure Patient Satisfaction with the Bojungikgi-tang Soft Extract

Mi-Sung Yang<sup>1</sup>, Kyeong-Ok Kim<sup>2\*</sup>, Seung-Jung Yang<sup>3</sup>

<sup>1</sup>Department of Rehabilita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Gyne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 :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measure the satisfaction of patients with the Bojungikgi-tang Soft Extract, which is a herbal medicine in a new dosage form.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23 patients at Dongshin University Sunchun Korean Medicine Hospital through survey questionnaires.

**Results** : A total of 23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o know their satisfaction level towards the Bojungikgi-tang Soft Extract.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Bojungikgi-tang Soft Extract regarding its effectiveness, taste, convenience, price, and transportability in comparison to existing dosage forms.

© 2016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This paper is available at <http://www.formulastudy.com>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nclusion :** The study showed that most pati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new drug dosage form than traditional forms and in needs of diversify of herbal medicine dosage forms.

**Key words :** Bojungikgi-tang soft extract, decoction, soluble granules

## I. 서론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의 제형이라 함은 약물을 사람 또는 동물에 투여하여 목적하는 효과를 쉽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상이나 성질을 갖춘 상태로 가공하여 만든 형태를 말한다<sup>1)</sup>. 황제내경의 처방에는 탕(湯), 환(丸), 산(散), 고(膏), 주(酒)의 5종류의 제형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약로(藥路), 정(錠), 조(條), 선(線), 훈연(熏煙), 훈세(熏洗), 적이(滴耳), 좌약(坐藥) 등의 제형이 개발되어 이용되어 왔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두 제형은 탕제와 환제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그 중에서도 현재 한방 의료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인 한약의 제형은 한약재를 80~120℃로 끓인 후 레틀트 파우치(Retort pouch)로 포장하여 보관하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20~30대의 젊은 연령층에 있어서 한약의 이미지는 맛이 쓰고 시간에 맞춰 데워야 하는 등 휴대성과 복용에 불편함을 느껴서 그로 인해 한약 복용을 망설임 경험에 있으며 만약 한약의 맛과 향, 제형 등을 개선할 시 한약 복용을 할 의사가 66.1%로 크게 나타나는 등 전통적인 한약의 제형이 개선 되어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sup>4)</sup> 탕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나 보험 급여 등의 이유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sup>5)</sup>.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탕제와 환제 이외에도 정제나 산제, 연고제 등이 개발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등<sup>6)</sup> 다양한 한약제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단미제를 제외한 56종의 의료보험약이 거의 대부분 과립형태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최근 농축 탕약제(혼합단미연조엑스제, 이하 연조엑스 제제)로 통상의 과립 형태가 아닌 진득한 성상의 바닐라향을 첨가한 액상형태의 보중익기탕이 의료 보험약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저자는 기존의 탕약이나 환약, 과립약 등의 복용에 비해 합성향을 첨가한 연

조엑스 제제에 대한 환자들의 실제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문에 보중익기탕 연조엑스제제가 정식 등록된 것은 2016년 8월 29일로 본 조사는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 동신대학교 순천 부속한방병원 외래를 통해 내원하여 보중익기탕 연조엑스제제(Fig. 1)를 처방 받은 환자 중 최소 3일 이상 투여한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환자 재진 시에 실시하였다. 자가 기입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환자가 직접 설문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거나 조사자가 직접 질의응답으로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이러한 제형이 나오기 전 한약제형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호도 조사와 변화 요구를 담은 손<sup>4)</sup>과 김<sup>5)</sup>의 설문지를 참고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성별, 연령, 직업을 조사하고 투약기간과 질환별로 구분한 다음 여타의 다른 한약 제형제 비교했을 때 연조엑스 제제의 맛, 제형, 휴대성, 복용의 편리성, 약값, 효능 등의 만족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Fig. 1. Bojungikgi-tang Soft Extract

\* Corresponding author : Kyeong-Ok Kim,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Neuropsychiatry, Suncheon Korean Hospital of Dongshin University, 331, Isu-ro, Suncheon-si, Jeollanam-do, 57949, Republic of Korea.

Tel : +82-61-729-7166, Fax : +82-61-725-1717, E-mail : dear\_ogi@naver.com

• Received : November 3, 2016 / Revised : November 16, 2016 / Accepted : November 24, 2016

## 2. 통계

조사결과는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질량별 만족도 비교와 급여인지여부 상태에서의 만족도 비교, 그에 따른 재복용 의사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 3. 환자 동의서 작성과 윤리적 승인

- 1) 본 연구는 환자에게 진료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정보의 논문활용에 대해 동의를 얻은 이후에 진행하였다.
- 2) 본 연구는 동신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 (승인번호 2016-4)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명(26.1%), 여성이 17명(73.9%)으로 여성이 훨씬 많았고 연령은 30대 이하가 5명(21.7%), 3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8명(34.8%)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고 40대가 2명(8.6%)으로 가장 적었다. 직업군으로는 전문직이 11명(47.8%)으로 가장 높았고 주부와 사무직이 각각 4명(17.4%), 무직, 서비스직, 자영업, 학생이 각각 1명(4.3%)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arget for investigation

Group	N	%	
Gender	male	6	26.1
	female	17	73.9
Age	under 30 years	5	21.7
	30~39 years	8	34.8
	40~49 years	2	8.6
	over 50 years	8	34.8
Occupation	none	1	4.3
	housewife	1	4.3
	sales and service	1	4.3
	self-employed	1	4.3
	student	1	4.3
	office job	4	17.4
	specialized job	11	47.8

- 2) 보중익기탕 연조엑스제제의 투약기간 및 처방목적, 질환 호전도, 병행치료 여부

투약기간을 살펴보면 3일~1주일 이내의 단기간 처방이 14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1주일~2주일 사이가 5명(21.7%), 4주 이상이 3명(13%)순이었다.

처방목적으로는 피로감이나 체력저하 등 전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15명(65.2%)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과 비뇨기계 질환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각각 2명(8.7%)으로 뒤를 이었다.

처방 후, 개선하기 위한 질환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에 대한 응답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2건(8.7%)를 제외하고 '약간 호전되었다'라고 응답한 것이 18건(78.3%), '거의 호전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건(13%)으로 완전 호전은 없으나 긍정적 응답이 91.3%로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병행치료 여부는 보중익기탕 연조엑스를 복용하면서 여타의 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17명(73.9%)으로 다른 치료를 받은 경우(6명, 26.1%)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Period, Disease, Simultaneous treatment, Degree of improvement of Bojungikgi-tang soft extract

Group	N	%	
Period	3days ~ 1 week	14	60.9
	1week ~ 2weeks	5	21.7
	2weeks ~ 3weeks	1	4.3
	over 4weeks	3	13
Disease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2	8.7
	fatigue syndrome	15	65.2
	diseases of the urinary system	2	8.7
Simultaneous treatment	none	17	73.9
	done	6	26.1
Degree of improvement	not at all	2	8.7
	a little	18	78.3
	almost	3	13
	totally	0	0

### 3) 보중익기탕 연조엑스제제와 다른 제형과의 비교

조사 대상자중 과거에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을 어떠한 형태로든 복용한 적이 있는지의 경험에 따라 연조엑스제제와 맛, 제형, 휴대성, 복용의 편의성, 약값, 효능의 6가지 항목에 대하여 비교 연구를 하였다. 전체 23명 중 22명이 과거에 한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중복 응답이 허용된 결과 탕약제제를 복용한 경험이 20명(87%)으로 가장 많았고 가루 형태로 된 제제가 8명(34.8%), 환약이 4명(17.4%) 고약이 2명(8.7%)순이었다.

먼저, '맛' 부문을 봤을 때, 과거에 탕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 20명중 연조엑스제제를 복용했을 때, '맛' 부문에서 탕약보다 만족스럽다고 느낀 응답자는 14명(70%)으로 가장 높았고 탕약이 더 낫다고 느낀 응답자는 3명(15%)에 불과했으며 탕약과 연조엑스의 맛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자가 3명(15%)이었다. 과거에 가루약 형태의 한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 8명에서 연조엑스가 가루약보다 낫다고 응답한 사람이 5명(62.5%), 비슷하거나 가루약이 더 낫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명(25%)과 1명(12.5%)으로 도합 3명(37.5%)이었다. 환약과 고약은 각각 응답자가 4명과 3명으로 환약은 4명 모두 환약보다 연조엑스가 더 만족스럽거나 비슷하다고 하였고 고약의 경우 3명중 2명(66.7%)은 연조엑스가 더 낫지만 1명(33.3%)은 고약이 더 낫다고 하였다.

'제형' 부문을 봤을 때, 탕약복용 경험자 중 15명(75%)이 연조엑스제제가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탕약과 연조엑스 제제가 비슷하다고 한 응답자는 4명(20%), 탕약이 더 낫다고 한 응답자는 1명(5%)에 불과했다. 가루약 복용 경험자 중 7명(87.5%)이 연조엑스제제가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1명(12.5%)만이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루약 제형이 더 낫다고 한 응답자는 없었다. 환약 복용 경험자 중에서는 3명(75%)이 연조엑스제제가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1명(25%)은 환약이 더 낫다고 응답하였다. 고약 복용 경험자 중 2명(66.7%)은 연조엑스제제가 더 만족스럽다고 하였고 1명(33.3%)만이 고약제제가 더 낫다고 하였다.

'휴대성' 부문을 봤을 때, 탕약 경험자와 고약 경험자 전원이 연조엑스 제제가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가루약 복용자와 환약 복용자에서는 연조엑스 제제가 더 낫거나(가루약-50%, 환약-75%) 비슷하다고

(가루약-50%, 환약-25%) 응답하였으며 기존 제제의 휴대성이 더 낫다는 응답은 없었다.

'복용의 편의성' 부문을 봤을 때, 탕약 경험자 전원이 연조엑스 제제가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가루약, 환약, 고약의 경우 비슷하다고 응답한 각각 1명씩을 제외한 전원이(가루약-87.5%, 환약-75%, 고약-66.7%) 연조엑스 제제가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약값'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값이 높은 탕약과 고약의 경우 탕약 경험자 중 17명(85%)이 연조엑스 제제가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1명(5%)만이 탕약이 더 낫다고 응답하였으며 고약의 경우 전원이 연조엑스 제제의 약값이 더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가루약이나 환약의 경우 가루약 경험자는 4명(50%)이, 환약의 경우 1명(25%)을 제외한 3명(75%)이 약값에 있어서 연조엑스에 대한 더 만족함을 나타내었다. 탕약 부분 1명을 제외하고 연조엑스 제제보다 기존 제제의 약값이 더 낫다고 한 응답자는 없었다.

'효능' 부문에서 탕약 경험자는 20명중 9명(45%)이 연조엑스 제제보다 탕약이 더 낫다고 응답하였는데 탕약과 연조엑스 제제의 효능이 비슷하다고 한 응답자도 8명(40%)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3명(15%)만이 연조엑스 제제가 효능 또한 낫다고 응답하였다. 사실 보중익기탕의 탕약 제제와 연조엑스 제제의 약물 효능 비교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응답자들이 전통적인 탕약 제제가 연조엑스 제제보다는 효능이 더 낫거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루약 경험자는 1명(12.5%)을 제외한 나머지가(87.5%) 연조엑스 제제의 효능을 더 낫거나 비슷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환약 복용 경험자는 4명중 3명(75%)에서 환약이 더 낫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6가지 항목을 응답자가 가진 치료목적, 즉, 소화기계 질환과 전신 피로, 비뇨기계 질환 등 어떤 질환을 목적으로 처방 받았는지에 따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질환과 6가지 항목 각각에 대하여 질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사하였으나 유의한 확률이 없었다. 즉, 소화불량으로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제제를 투여한 것과 피로 증후군으로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제제를 투여한 군간에 있어서 각각 맛이나 제형, 휴대성, 편의성, 약값, 효능에 대한 결과값이 어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탕약, 가루약, 환약, 고약 각각의 제제와 연조엑스 제제에 대하여 맛, 제형, 휴대성, 편의성, 약값, 효능을 비교한 군간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서로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탕약

과 연조엑스제제의 만족도 비교결과와 가루약과 연조엑스 만족도 비교결과 사이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Table 3.** Comparison survey of Bojungikgi-tang soft extract and another type of herbal medicine

Groups	type of ex-herb medicine(N)	N(%)		
		soft extract is better than another type	make no difference	ex-herb medicine is better than soft extract
Taste	decoction(N=20)	14(70%)	3(15%)	3(15%)
	soluble granules(N=8)	5(62.5%)	2(25%)	1(12.5%)
	pill type(N=4)	2(50%)	2(50%)	0
	sticky type(N=3)	2(66.7%)	0	1(33.3%)
Manufactured type	decoction(N=20)	15(75%)	4(20%)	1(5%)
	soluble granules(N=8)	7(87.5%)	1(12.5%)	0
	pill type(N=4)	3(75%)	0	1(25%)
	sticky type(N=3)	2(66.7%)	0	1(33.3%)
Transportability	decoction(N=20)	20(100%)	0	0
	soluble granules(N=8)	4(50%)	4(50%)	0
	pill type(N=4)	3(75%)	1(25%)	0
	sticky type(N=3)	3(100%)	0	0
Convenient to take	decoction(N=20)	20(100%)	0	0
	soluble granules(N=8)	7(87.5%)	1(12.5%)	0
	pill type(N=4)	3(75%)	1(25%)	0
	sticky type(N=3)	2(66.7%)	1(33.3%)	0
Price	decoction(N=20)	17(85%)	2(10%)	1(5%)
	soluble granules(N=8)	4(50%)	4(50%)	0
	pill type(N=4)	3(75%)	1(25%)	0
	sticky type(N=3)	3(100%)	0	0
Effectiveness	decoction(N=20)	3(15%)	8(40%)	9(45%)
	soluble granules(N=8)	5(62.5%)	2(25%)	1(12.5%)
	pill type(N=4)	1(25%)	0	3(75%)
	sticky type(N=3)	0	2(66.7%)	1(33.3%)

4)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제제의 만족도 조사

탕약이나 가루약등 다른 형태의 한약제제와 비교 외에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자체의 맛과 제형, 휴대성등 6가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맛, 제형, 휴대성, 복용의 편의성, 약값, 효능 6가지 항목에 있어서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의 두가지 항목을 제외한 적당함, 만족, 매우 만족함의 세가지 항목을 통합하면 각각 맛에서는 18명(78.3%), 제형에서 21명(91.3%), 휴대성에서 21명(91.3%), 복용의 편의성에서 21

명(91.3%), 약값에서 20명(87%), 효능에서 18명(78.3%)로 전 항목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각 항목에 대한 결과값이 각각의 질환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질환에 상관없이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제제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결국, 타 제형과 비교에서 만족도가 높기도 하지만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단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Satisfaction survey of Bojungikgi-tang soft extract

Groups	N				
	very unsatisfactory	unsatisfactory	moderate	satisfactory	very satisfactory
Taste	1	4	7	6	5
Manufactured type	1	1	5	9	7
Transportability	1	1	3	5	13
Convenient to take	1	1	4	4	13
Price	1	1	4	8	8
Effectiveness	1	4	11	5	2

5)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제제의 급여인지와 재복용 의사

응답자중 18명(78.3%)이 연조엑스 제제의 의료보험 혜택을 인지하고 복용하였으며 22명(95.7%)가 재복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약을 받을 때 가장 고려하는 항목에서 18명(78.3%)이 치료효과를, 4명(17.4%)이 휴대나 복용의 편리함을 선택하였다.

의료보험 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제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유의확률 모두 5%보다 크게 나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의료보험 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재복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교차 분석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Health insurance recognition and will of take again on Bojungikgi-tang soft extract

Groups	will of take again	N	%	Mean±SD	p-value
Taste	exist	22	95.7%	3.41±0.284	0.924
	none	1	4.3%	2.00	
Manufactured type	exist	22	95.7%	3.82±0.276	0.974
	none	1	4.3%	3.00	
Transportability	exist	22	95.7%	4.09±0.294	0.551
	none	1	4.3%	5.00	
Convenient to take	exist	22	95.7%	4.05±0.298	0.610
	none	1	4.3%	5.00	
Price	exist	22	95.7%	3.68±0.332	0.867
	none	1	4.3%	4.00	
Effectiveness	exist	22	95.7%	3.00±0.279	0.400
	none	1	4.3%	2.00	

III.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제제에 대하여 탕약이나 산제, 환제, 고약과 비교하여 맛, 제형, 휴대성, 복용의 편의성, 약값, 효능에 대한 만족도 및 재복용 의사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단순 비교, 질환별 비교를 하였다. 이러한 제형이 필요하며 한약이 급여화 되어야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실제로 연조엑스 제제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복용 후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보중익기탕은 한의원 다빈도 처방 순위 중 2위<sup>7)</sup>,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용 실적 6위<sup>8)</sup>, 한방의료기관 한약제제 구비율 9위<sup>9)</sup> 등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처방으로 金元代 李杲의 脾胃論 飲食勞倦 所傷始爲熱中論에 補中益氣하고 升陽舉陷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脾胃의 氣虛로 인한 身熱有汗, 頭痛惡寒, 渴喜溫飲, 少氣懶言, 體倦肢軟, 色蒼白, 大便稀溏이나 氣虛下陷으로 인한 脫肛, 子宮下垂, 久瀉, 久痢, 久瘧 등의 諸證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sup>10)</sup>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 외래로 내원한 환자

중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제제를 3일 이상 복용하고 재차 내원하여 설문지 작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성별은 여성이 73.9%,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직업별로는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투약기간은 3일 이상 1주 이내가 60.9%로 가장 많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질환은 전신증상, 즉 피로증후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65.2%로 가장 많았다. 복용 도중 연조엑스 단독으로 치료한 경우가 73.9%로 다른 치료와 병행한 경우보다 높았다. 과거에 환자가 다른 제형의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경우, 연조엑스 제제와 맛, 제형, 휴대성, 복용의 편의성, 약값 항목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 연조엑스 제제가 작게는 50%에서 크게는 100%까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일하게 기존 제제가 더 낫다고 평가한 항목은 탕제와 환약 부분의 '효능' 항목 한 부분이었으며 산제의 경우 '효능' 면에서도 연조엑스 제제가 더 낫다고 응답하였다. 즉, 탕제와 환약의 효능을 제외하면 여타 대부분의 항목과 제형에서 연조엑스제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제제의 자체 만족도에서도 만족함과 매우 만족함을 합한 항목이 78.3%(18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당함과 만족함, 매우 만족함까지

합하면 91.3%(21명)까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형, 휴대성, 복용의 편의성, 약값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맛에서는 비교적 만족하나 바닐라향의 단맛에 따른 기호 차이인지 불만족한 경우도 있었고 효능 부분에서도 비교적 다른 부분보다 만족한 정도가 작았다. 그러나 효능부분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결론은, 탕약과 효능 비교부분을 제외한 탕제, 산제, 환제, 고제와의 비교에서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자체적으로도 효능 면을 제외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직은 전통적인 탕약이 더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맛이나 편의성, 휴대성등에서 연조엑스 제제가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만약 추출기술이 더욱 정밀해져서 탕약과 효능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면, 앞으로의 한약 제제는 크게 바뀔 수도 있겠다.

한약 제형에 대한 변화, 특히 간편하고 맛이나 향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정제나 캡슐제, 액상제제에 대한 필요성은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sup>1,4)</sup>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보다 오히려 변화가 늦은 것이 한약의 제형 변화였다.

한약의 제형 변화는 각 제형별 치료효과가 동등해야 하고 복용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개인이나 한의원 단위로 이루어내기는 어렵다. 최근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개발한 농축 탕약제(혼합단미연조엑스제)의 개발은 이런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며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가루형태가 아닌 제제로 의료보험 혜택이 있다는<sup>11)</sup> 점에서 고무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순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약제제의 개선이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전통적으로 활용되어온 복용방법인 탕약(湯藥)과 관련된 것으로 탕전조건에 따라 약액의 추출 정도가 달라지고 이는 곧바로 유효물질의 농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치료효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sup>12)</sup>. 이러한 문제점과 연관하여 중국은 이미 1982년에 “현대의약과 중국의 전통의 약을 발전시키자”는 취지 아래 국책사업으로 중의약을 육성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제형의 변화를 추구해 왔다<sup>13)</sup>.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도 한약이라고 하면 탕약이 대부분이며 환제나 산제, 고제가 부수적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이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의 한약 제형 변화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중국의 연구에 아직은 뒤쳐진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제형 변화에 있어서 중국의 선례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약이 맛이나 향 때문에 복용이 불편하고 휴대하기에 좋지 않아 한약 제형변화에 대한 욕구가 환자 뿐 아니라 한의사 내에서도 꾸준히 있어왔지만, 막상 한약은 탕약이라는 고정관념이 퍼져있기도 하고 제형변화 사업을 일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한 제형에 대한 변화는 오히려 건강기능식품보다 뒤쳐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제제, 연조엑스나 정제 등의 한약이 개발되고 그러한 제형들이 의료 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연조엑스 제제 중에서도 보중익기탕 연조엑스제제를 선택해서 조사한 것은 이 제품이 바뀐 제형 중에서도 가장 빨리 출시되었으며 의료 보험의 혜택이 있고 다빈도 처방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기간이 짧고 연구대상의 수가 적어서 충분한 표본을 얻지 못한 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이러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비록 작은 표본 연구라도 이후에 한약 제형의 다양화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예비 자료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외에 평위산 연조엑스제, 반하사심탕 연조엑스제, 오적산 연조엑스제, 갈근탕 정제등 이미 개발되어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 처방 및 향후 개발될 정제와 연조엑스제 등에 대하여 대다수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도 의미있으리라고 본다.

## References

1. Choi HJ, Bhang NY, Song BW, Kim NJ, Ryu BH. Survey on the preference for the dosage forms of oriental herbal medicine. The Journal of Kyung Hee University. 2004;20(1):46-57.
2. Kim JC. Korean Traditional Medicine Dictionary. Jungdam Publisher. 2010:1454.
3. You YB, Ma JY, Ha HK, Hwang DS, Kim BK, Shin KS, Shin HK. Observation of Microorganism in Herbal Decoction manufactured by Korean medical clinic.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2007;15(2):119-26.

4. Son SM. Demand and Preference for The Modification of Dosage Forms of Oriental Herbal Medicines by 20s~30s Younger Consumers. Graduate School of Medicinal Food, Chung-Ang University, Major in Health Function. 2006.  
5. Kim YH, Kim SH, Jang HJ, Park JK, Jung MY, Park YS. Suevey on the Preference for the Improvement of Oriental Herbal Medicine Insuranc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2009;24(4):17-23.  
6. Kim NJ. Developed a model to expand Herbal medicine insurance benefits for Oriental Herbal medicine to activate Herbal medical insuranc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96;220-278.  
7.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Herbal Medicine. 2006:91-94.  
8.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Statistics Annual. 2008:209.  
9. Park YH, Hwang DS, Shin HK. The Analysis of Herbal Medicine Preparations Equipped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Clinics. Herbal formula Science. 2010;18(1):43-56.  
10. Professor of oriental medicine Co-author. BangJaeHak. Seoul:Younglim Publisher. 2003:279-281.  
11. Available from:URL:http://www.akomnews.com/?p=362188  
12. Kim YK, Kim JS, Choi H. The decocting and taking methods of herbal medicines,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4;10(2):63-72.  
13. Sung HJ, Shin HK.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ese herbal medicine mark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Research Report. 1997a.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가 복용하신(혹은 복용중인)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제제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본 연구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철저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동신대학교 부속 순천 한방병원

연구자 : 양미성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거나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은? ① 남 ② 여

연령은? 만 ( )세

직업은? ① 무직 ② 주부 ③ 영업직 또는 서비스직  
④ 자영업 ⑤ 학생 ⑥ 사무직 ⑦기술직  
⑧ 전문직 ⑨ 기타

1. 투약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3일이상~1주일 이내 ② 1주일~2주일  
③ 2주일~3주일 ④ 3주일~4주일 ⑤ 4주이상

2. 귀하는 보중익기탕 연조 엑스제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보중익기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투여합니다. 본인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방받았는지 체크하신 후, 개별 증상에 ○ 해주세요.

소화기계 질환	소화불량, 복통, 식욕부진, 기능적 설사, 트림, 위십이지장염, 위궤양, 위하수
전신상태 개선	병후의 체력저하, 피로증후군, 권태감, 피로감, 다한증, 식은땀, 과로 혹은 영양장애로 몸에 열이 나고 속이 답답하며 식은땀이 나고 피곤한 경우, 이명
비뇨기계 질환	기운이 없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 방광염
호흡기계 질환	만성 후두염, 기침
기타	

3. 보중익기탕 연조엑스제를 복용하신 후 본인이 기존에 불편했던 증상은 호전되었습니까?

- ①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② 약간 호전되었다  
③ 거의 호전되었다. ④ 완전히 호전되었다.



4. 기존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보중익기탕 연조엑스 제제 투여기간내에 다른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① 받지 않았다 ② 받았다. ----- 4-1로

4-1. 다른 치료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침 ②뜸 ③부항  
④보중익기탕 연조 엑스 이외의 한약  
⑤양약 ⑥ 기타( )

5. 귀하는 이전에 한번이라도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5-1. 예전에 한약을 복용한적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한약이었습니까?

- ① 탕약 - 5-1-2.로 가세요  
② 가루약 5-1-3로 가세요  
③ 환약 5-1-4로 가세요  
④ 고약(예: 경옥고) 5-1-5로 가세요

5-1-2. 예전에 복용했던 탕약과 비교했을 때, 연조엑스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어떻습니까?

	더 만족스럽다	비슷하다	탕약이 더 낫다
맛			
제형			
휴대성			
복용의 편의성			
약값			
효능			

5-1-3. 예전에 복용했던 가루약과 비교했을 때, 연조엑스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어떻습니까?

	더 만족스럽다	비슷하다	가루약이 더 낫다
맛			
제형			
휴대성			
복용의 편의성			
약값			
효능			

5-1-4. 예전에 복용했던 환약과 비교했을 때, 연조엑스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어떻습니까?

	더 만족스럽다	비슷하다	환약이 더 낫다
맛			
제형			
휴대성			
복용의 편의성			
약값			
효능			

5-1-5. 예전에 복용했던 고약과 비교했을 때, 연조엑스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어떻습니까?

	더 만족스럽다	비슷하다	고약이 더 낫다
맛			
제형			
휴대성			
복용의 편의성			
약값			
효능			

6. 복용하신 보중익기탕 연조엑스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생각하신대로 칸에 체크해주시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적당함	만족	매우 만족함
맛					
제형					
휴대성					
복용의 편의성					
약값					
효능					

7. 보중익기탕 연조 엑스 제제는 의료보험 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①알고 있다 ② 모른다.

8. 처방약을 받을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약값 ② 치료효과  
③ 휴대의 편의성  
④ 복용의 용이성  
⑤ 어느 하나라고 말할 수 없다.

9. 보중익기탕 연조 엑스를 재복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있다 ② 없다.